네트웍 컴퓨터의 미래

이장열 차장(월간 경영과컴퓨터 편집장)

정보통신의 급속한 발전은 Fat-Sever Thin-Clint라는 새로운 조류를 만들었다.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이언트가 아닌 서버가 보유하고 관리하면서 문자 그대로 클라이언트부문의 무게가 슬림화되는 것이다.

NC(Network Computer)는 이렇게 변화하는 컴퓨팅 환경의 새로운 아키텍처로, 기존 환경을 위협하는 강력한 존재로 부상하고 있다. NC는 현재 정보통신의 거대 줄기를 형성한 윈텔(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 연합) 진영에 대항하기 위해 오라클과 썬, 넷스케이프 진영에서 내세운 전략적 무기일 수도 있다. 그러나 단순히 이들 거대 기업간 주도권 다툼의 산물로 치부하기에는 NC가 내포하는 의미와 가능성이 너무 크다. NC는 컴퓨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신조류로서 IT의 발전에 따라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흐름이라는 해석이 보다 설득력 있다.

NC란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서버에서 전송받아 활용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기본사양만 필요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이 특징이다. 오라클은 5백달러대 가격에 NC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NC는 현재 정보통신 환경을 주도해 나가는 핵심기술이라는 테두리에서 미래에 대한 가능성과 필연성을 찾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NC는 인터넷이 낳은 산물이다. 인터넷은 TCP/IP라는 기본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다면 플랫폼에 구애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기종간 강력한 통신수단이 될 수 있다. 게다가 기본적으로 브라우저만 있으면 운영되기 때문에 시스템 사양을 최소화할 수 있다. 결국 인터넷 수요가 확대되고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면서 NC 환경은 필연적으로 갖추어진 것이다.

또하나 네트웍 인프라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도 NC의 미래를 밝게 한다. 국내의 경우 정부에서 초고속정보통신망 계획을 수립, 전개해 가고 있다. 서비스 시기가 당초계획보다 앞당겨 질 전망이어서 기반 조성은 가속화되고 있다. 또 기업체와 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표방하면서 네트웍을 안정화함에 따라, 네트웍 기반에서 운영되는 NC는 입지 확보를 위한 충분한 근거를 마련해 가고 있다.

여기에 객체기술의 발전은 NC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이에 대별되는 진영을 중심으로 표준 논쟁을 벌이고 있는 DCOM과 CORBA 기술의 최종지향점은 이용자에게 통합된 환경을 지원하는 것으로 모아진다. 서버 기종에 관계없이 클라이언트는 균등한 접근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넷PC 역시 이런 개념에서 본다면 NC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넷PC는 인터넷 접속과 가전과의 결합을 추구하면서도 윈도우에 기반한 기존 PC 아키텍처를 고수한다는 점이 다르다. 결국 이를 실현하는 유형상의 차이일 뿐 기본 환경에 대한 접근은 같은 논리인 셈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컴퓨팅 환경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NC건, 넷PC건 예전 메인프레임 시대의 더미터미널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다. 또 기존 애플리케이션과의 호환성 문제, NC 기반의 룸 브라우저가 최신기술을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

사실 NC가 정보통신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하며 차세대 클라이언트로 관심의 대상은 되고 있지만 단시간내 자리잡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히 국내 실정에서는 더욱 그렇다. 아직까지는 가장 중요한 네트웍 환경이 열악한데다 한글지원 문제가 해결돼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우선은 기반 환경이 갖추어진 기업체에서 새로운 정보기기로 자리잡아 가면서 점차 일반 가정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따라서 당장 컴퓨팅 환경의 주류로 떠오르긴 어렵지만, NC가 미래 컴퓨팅 환경을 주도하는 클라이언트로 충분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다. DC